

# 知識人の 遊戯手段으로서의 對聯\*

팽 철 호\*\*

<目次>

I. 머리말	IV. 대련에 내재된 유희적 성격
II. 대련의 한 가지 특성을 나타 내는 '巧妙'의 함의	V. 유희적 성격을 띠는 대련의 예
III. 대련의 분류에서 확인되는 대련의 기교적 특성	VI. 유희수단으로서의 대련
	VII. 맺음말

## I. 머리말

대련은 상형문자이자 고립어인 한자의 특성과 성조가 의미 분화에 관여하는 중국어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의 힘이 하나의 구조 속에 담겨 있다는 중국인의 세계관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해내는 문학 장르다.<sup>1)</sup> 대련의 그러한 특성은 대련의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두 구로 이루어지되 각 구의 글자 수는 동일해야 하고, 두 구 각각의 문장 구조도 같아야 하고, 같은 위치의 글자는 품사와 의미의 부류가 같아야 한다. 또 각 구의 짝수 번째 글자의 평측은 반대가 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出句 즉 앞 구의 끝 글자는 축성이어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1).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줄고, <對聯의 중국문학사적 위상에 대하여>, 《中國文學》59, 2009.05. 참조.

야 하고 對句 즉 뒤 구의 끝 글자는 평성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대련의 형식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규제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대련은 형식적 요건이 중시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장르를 막론하고 각 장르는 그 나름의 특징적인 형식이 있게 마련이지만 대련처럼 형식이 강조되는 문학 장르는 드물다.

문학의 한 갈래이면서 형식이 매우 중시된다는 것은 내용이 다소 부실해도 형식적 요건만 교묘하게 갖추면 하나의 작품으로 행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련의 형식이 엄격하다고는 하나 문자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편폭이 짧은 작품은 순간적인 기지만으로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련에는 규정된 형식에 따라 글자를 맞추어 넣는 문자유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본래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대련의 여러 가지 측면 중 유희적인 성격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면서 문학 장르로서의 대련의 특징과 그 한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전통시대 중국 지식인들의 정신세계의 일면을 탐구하고자 한다.

## II. 대련의 한 가지 특성을 타나내는 ‘巧妙’의 함의

대련을 소개하는 서적 중에는 ‘巧’자와 ‘妙’자를 써서 책의 이름으로 삼은 것들이 흔히 눈에 띈다.<sup>2)</sup> 그런 현상은 대련에는 ‘巧’나 ‘妙’로 그 특징을 규정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대련은 기교가 매우 두드러지는 장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新編巧妙對聯》이라는 책의 목차를 보면 그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책의 목차는 대부분 대련의 형식

2) 常江·王玉彩 選編, 《新編巧妙對聯》(北京: 金盾出版社, 2004.4) 周楠湘 編著, 《巧妙對聯與對聯故事》(北京: 中國華僑出版社, 2007.11) 등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교와 관련된 것들이다.<sup>3)</sup> 《新編巧妙對聯》 제 191쪽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실려 있다.

煙鎖池塘柳,      안개는 연못가 버드나무를 감싸고,  
燈鑲港埠樓.      등불은 부둣가 누각에 새겨져 있네.

위의 구는 乾隆황제가 중국 강남 지방을 순유하다가 西湖에서 얻은 구라고 전해지는 것이고,<sup>4)</sup> 아래의 구는 후대에 나온 여러 對句 중의 하나다. 안개 낀 호숫가의 저녁 풍경을 읊은 작품으로서 내용도 그럴듯하다. 그렇지만 이 대련이 정작 재미있는 것은 두 구 모두 각 글자의 변이 ‘火·金·水·土·木’ 즉 五行을 나타내는 글자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이 작품의 각 구의 글자들이 오행을 나타내는 글자들로 조합되었다는 것에서 기발함을 발견하고 재미를 느끼게 된다. 또 《新編巧妙對聯》 제 113쪽에는 이런 작품도 실려 있다.

三光日月星,      세 가지 빛은 해와 달과 별이요,  
四詩風雅頌.      네 가지 시란 풍과 아와 송일세.

이 대련은 遼나라 사신이 중국에 인제가 있는지 보려고 낸 出句에 蘇東坡가 아래의 對句를 만들어서 기를 꺾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다.<sup>5)</sup>

대련의 형식은 같은 위치에 같은 품사가 올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문제로 나온 出句에 ‘三’이라는 수사를 썼다는 것은 對句의 첫 자를 다른 수

3) “應徵類 網絡類 人名類 地名類 戲名類 書名類 植物類 藥名類 專名類 數字類 方位類 顏色類 嵌名類 拆字類 偏旁類 疊字類 雙關類 回文類 頂真類 摹狀類 擬聲類 音韻類 複辭類 無情類 成語類 俗諺類 白話類 隱語類 歇後類 其他類”로 되어 있는 목차는 앞의 ‘應徵類 網絡類’를 제외한 대부분이 기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胡會雲, 《中華對聯藝術》(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08.5), 제83쪽.

5) 汪陸, 《評釋巧對》제244則, 《聯話叢編》(龔聯壽 主編,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8) 제1권, 제147쪽.

사로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그럴 경우 나열되는 사안의 수가 위의 ‘三’이 대표하는 세 가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래 위 두 구의 글자 수가 같아야 한다는 대련의 요건에 저촉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난제를 소동파는 詩經의 시는 風·小雅·大雅·頌의 넷으로 나뉘면서도 이것은 다시 風·雅·頌의 셋으로 묶이기도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해결했던 것이다. 기발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대련의 요건을 충실히 만족시킨 점이 주목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의 감탄을 사는 것이다.

위 두 가지 경우와 같은 대련은 내용의 참신함과 심오함보다는 대련의 요건을 기발하게 충족시킴으로서 주목을 받고 호평을 받는다. 이러한 대련을 두고 일반적으로 ‘巧妙하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 교묘함은 대련 작품의 기교적인 측면에서 인지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대련의 분류에서 확인되는 대련의 기교적 특성

대련이 형식과 기교가 중시되는 장르라는 사실은 대련을 소개하는 서적에서 대련을 분류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련의 분류에 ‘巧’나 ‘妙’ 또는 이 둘을 함께 써서 대련의 한 부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巧’나 ‘妙’는 대련의 기교적 측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편의상 근년에 간행된 대련 관련 서적에서의 대련 분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精彩對聯》<sup>6)</sup>: 春聯 節日聯 行業聯 居室聯 喜慶聯 哀挽聯 題贈聯 格言聯 集句聯 風景聯 名勝聯 海外聯 巧趣聯 姓氏聯

《古今對聯集粹》<sup>7)</sup> 春節對聯 節日對聯 婚嫁對聯 生育對聯 賀壽對聯 喪

6) 李文鄭 楊燦 編, 《精彩對聯》(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4.1)

7) 王俊 主編, 《古今對聯集粹》(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008.10)

弄挽聯 宅第對聯 行業對聯 擁軍對聯 風景對聯 名勝對聯 **妙趣對聯** 修養對聯 諷諭對聯 名作對聯 **古今趣聯** 名寺對聯

《古今對聯集粹》<sup>8)</sup>: 時令節日 婚喪慶弔 行業店鋪 宅第裝飾 題贈勵志 名勝古跡 **趣聯巧對** 詩詞名聯 古今長聯

《中華對聯》<sup>9)</sup>民俗實用對聯(名聯精覽: 歲時節日 人生禮俗 工商百業; **妙聯趣事**)

名人格言對聯(名聯精覽: 名人聯語 處世格言; **妙聯趣事**)

祠廟陵墓對聯(名聯精覽: 北京 天津...; **妙聯趣事**)

佛寺道觀對聯(名聯精覽: 佛教寺院: 北京 天津...; 道教宮觀: 北京 天津...; **妙聯趣事**)

名城勝地對聯(名聯精覽: 北京 天津...; **妙聯趣事**)

山水佳迹對聯(名聯精覽: 北京 天津...; **妙聯趣事**)

《詳說對聯》<sup>10)</sup>: 聯藝探略: 春聯(節日聯 포함) 門聯(行業聯 포함) 婚聯 壽聯 挽聯 交際聯 堂聯 名勝古跡聯 文藝作品聯(題畫 포함) 其他(宣傳聯 寺廟聯 慶賀聯 戲臺聯 燈聯 器皿聯 筆聯 硯聯 墨聯 謎聯

聯英薈萃: 傳統經典對聯集錦(歷代名人對聯 古人遺跡對聯 風景名勝對聯 格言警語對聯 集句·集字對聯 **技巧妙趣對聯** 戲臺影樓對聯 文學著作對聯 弔唁哀挽對聯) 現代實用對聯精選(行業門面對聯 開業慶典對聯 婚禮吉慶對聯 壽誕祝賀對聯 宅第裝飾對聯 公曆節慶對聯 民間節慶對聯) **古今難聯絕對撮奇**

《名聯佳對賞析》<sup>11)</sup> 奇思妙構聯 譏諷諷刺聯 **奇巧諧謔聯** 寫景狀物聯 述志自警聯 贈答勸勉聯 慶賀弔挽聯 古今長聯賞析

《名聯鑑賞辭典》<sup>12)</sup> 名勝類, 題贈類, 喜慶類, 哀挽類, 行業類, **諧巧類**

- 8) 張夢新·張進 編著, 《古今對聯集粹》(杭州: 西泠印社出版社, 2008.4)  
 9) 陳君慧 主編, 《中華對聯》(1-4 冊)(北京: 線裝書局, 2008.11)  
 10) 任喜民 著, 《詳說對聯》(北京: 新世界出版社, 2007.1)  
 11) 鄭清秋(鄭春興) 編譯, 《名聯佳對賞析》(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6.8)

《對聯集萃》<sup>13)</sup>：慶賀春節聯(通用春聯 十二生肖春聯) 婚喪喜慶聯(婚聯 壽聯 宅聯 挽聯) 行業店鋪聯(商業服務業聯 農業聯 文化界聯) 風景名勝聯(名山聯 名岩聯 名湖聯 名泉聯 名關聯 名洞聯 名臺聯 名橋聯 名園聯 名宮聯 名樓聯 名閣聯 名亭聯 名廟聯 名寺聯 名塔聯 名居聯 名祠聯 名墓聯) 修養治學聯(修養聯 治學聯) **諧諷妙趣聯**(諷刺聯 妙趣聯)

《名聯佳對精選999》<sup>14)</sup> **妙趣 諧諷** 勝迹 題贈 行業 賀慶 寄挽 集聯

《對聯入門》<sup>15)</sup> 文學編(說理類, 抒情類, 寫景類) 實用編(喜慶類, 哀挽類, 行業類, 祠廟類) **諧趣編**(**嘲諷類, 妙對類, 技巧類**)

《對聯故事》<sup>16)</sup>：**神童妙對 名人逸趣 嘲諷諧謔** 聯海拾貝

《聯海拾珍-古今名聯妙對賞讀》<sup>17)</sup>：名人聯 **諧趣聯 工巧聯** 屬相聯

《古今短聯趣話》<sup>18)</sup>：(短而精 **巧而趣**) 一字聯趣話 兩字聯趣話 三字聯趣話 四字聯趣話 五字聯趣話 六字聯趣話 七字聯趣話 非字聯趣話

《對聯小辭典》<sup>19)</sup> 春聯(歷代春聯 現代通用春聯 生肖春聯) 節慶聯(傳統慶節聯 現代慶節聯) 婚慶聯(歷代婚慶聯 現代通用婚慶聯) 壽聯(歷代名人壽聯 現代通用壽聯) 挽聯(歷代名人挽聯 自挽聯 現代通用挽聯) 名勝古跡聯(山水園林 亭臺樓閣 堂館居室 寺廟祠墓) 部門行業聯(機關事業部門 工商行業) 述懷題贈聯(自題述懷 讀書自勉 饋贈 集句) **嘲諷巧趣聯**(**嘲諷 巧趣**) 古典小說中的對聯

12) 蔣竹蓀 等 編著,《名聯鑑賞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8.1)

13) 石益仁·毛從民 選編,《對聯集萃》(合肥: 黃山書社, 2005.4)

14) 王謙·高立 編著,《名聯佳對精選999》(濟南: 山東人民出版社, 2005.1)

15) 谷向陽·劉太品 編著,《對聯入門》(北京: 中華書局, 2007.7)

16) 宋輝 編,《對聯故事》(成都: 四川大學出版社, 2004.1)

17) 永志強 編著,《聯海拾珍-古今名聯妙對賞讀》(北京: 北京出版社, 2004.9)

18) 傅小松 著,《古今短聯趣話》(長沙: 岳麓書社, 2004.4)

19) 王友平 編著,《對聯小辭典》(成都: 四川出版集團·四川辭書出版社, 2005.1)

다소 번다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대련의 분류에서 드러나는 대련의 특징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곧 대련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책이 대련의 형식적 측면에 치중하는 부류를 따로 설정한다는 점은 대련이 형식적 요건이 중시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교가 강조되는 장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내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대련의 분류를 수행하면서도 끝내 형식과 기교가 중시되는 부류를 따로 설정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대련은 형식과 기교가 중시되는 장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 IV. 대련에 내재된 유희적 성격

앞 장에서 살펴본 대련 분류 양상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2004년을 전후해서 대련 관련 서적이 대거 출판된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아마도 2004년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에 대련 문제가 출제되면서 대련이 새롭게 각광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1)</sup> 대련의 분류가 비체계적이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대련의 기교적 측면을 암시하는 ‘巧’나 ‘妙’라는 말이 자주 ‘諧’와 ‘趣’라는 말과 어울리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소개된 책들은 대개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출간된 책들이지만, 대련의

20) 《對聯藝術探微》(戴本恒 編著,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5.1)에서는 ‘대련의 분류’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분류하지 않았지만 대련의 분류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제8장 ‘日常應用對聯’과 제9장 ‘對聯佳作欣賞’의 두 장이 있다. 이 중 ‘日常應用對聯’에서는 대련을 春聯·婚聯·壽聯·新宅聯·行業聯·哀挽聯의 6종류로 나누고 ‘對聯佳作欣賞’에서는 應徵獲獎聯·精妙嵌名聯·勝迹題述聯·生活哲理聯·行業咏贊聯·名人哀挽聯·傑出高長聯·‘大橋杯’獲獎長聯及聯評의 8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精妙嵌名聯’은 내용과 관계없는 순수 형식에 관한 것인데, 이런 분류도 형식적 특성이 두드러진 대련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1) 같은 책, 3쪽 참조.

분류와 관련하여 서로 교감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대련의 분류와 관련하여 고민한 흔적을 보이는 서적이 별로 없다. 나름대로 대련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를 수행할 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였고 그 분류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대련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다.<sup>22)</sup>

대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장애를 초래하는 대련 분류의 난맥상은 기실 중국문학 장르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중국문학 장르 분류의 난맥상이 대련이라는 하나의 장르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23)</sup> 중국문학의 장르는 상위 표지와 하위 표지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에 대련이라는 단일 장르가 의미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발상이 그래서 가능해진다. 중국문학의 장르론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이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 장의 대련 분류 양상에서 본고의 주제와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巧’나 ‘妙’라는 말이 ‘諧’와 ‘趣’라는 말과 호응하여 나타나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巧’와 ‘妙’가 대련의 기교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諧’와 ‘趣’ 각각 ‘우스개’와 ‘재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대련의 해학적이고

22) 필자가 확인한 것으로는 《中國民間對聯賞玩》(錢永興 著, 中國 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05.4)이 도입부에서 ‘對聯的分類’라는 한 절을 설정하여 선행하는 몇 가지 대련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 정도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대련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고 할 수 있는 학위 논문 중에는 대련의 분류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분류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련의 분류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논문으로는 華中師範大學의 碩士學位論文 <清代梁章鉅《楹聯叢話》研究>(任先大 著, 2006)과 內蒙古大學의 碩士學位論文 <對聯藝術的繼承和發展>(王金鳳 著, 2009)이 눈에 띈다.

23) 중국문학 장르의 체계적 분류에 대한 고민은 줄고 <중국문학 장르 분류 방법론의 모색>, 《中國學論叢》25(국민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9.2), 제173-198쪽 참조.

도 유희적 특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앞 장의 대련의 분류에서 보면 ‘巧·妙’가 ‘諧·趣’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기교가 돋보이는 대련은 유희적 오락적 성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遊戯聯’이라는 말로써 그 성격을 특정한 경우도 있다.<sup>24)</sup>

《對聯常識》<sup>25)</sup>에서 규정한 ‘遊戯聯’은 다시 ‘析字聯·嵌字聯·絞聯·隱字聯’의 네 가지로 나뉘고 있다. 또 《中國楹聯學概論》에서는 ‘對句’와 ‘謎聯’을 그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巧妙對聯與對聯故事》에서는 하위 범주를 설정하지 않고 개별 대련의 제목만 달고 있으나 ‘遊戯趣味聯’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정의를 하고 있다.

遊戯趣味聯은 바로 여러 가지의 예술 수법을 운용하여 우습고 재미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대련이다. 이러한 종류의 대련은 대부분 구상을 함에 있어서 독창성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생각하여 비유와 과장 의인 상관 배비 등의 수사 수법을 운용하여 교묘한 의경과 여운을 만들어 내는데, 보고 있으면 눈과 마음이 즐겁고 읽으면 묘한 재미가 마구 생겨난다. 유희취미련은 예술 표현에 있어서 또 늘 감자 집자 회문 첩자 탁자 연주 자미 등의 특수하고도 교묘한 형식을 사용하므로, 유연하고 변화가 많으며 생동감이 넘치고 재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희취미련은 유희와 머리싸움과 놀리기와 풍자와 비꼼과 대구 찾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나타내는 내용과 드러내는 함의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볍고 유머러스하고 우스꽝스럽다거나 혹은 풍자의 의미가 충만한 것이다.<sup>26)</sup>

24) 《對聯常識》(任志揚,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88.12)의 목록에는 ‘對聯中常見的遊戯聯’과 ‘關於“趣聯巧對”和“絕對”라는 항목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遊戯聯’의 범주를 더 엄격히 규정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또 《中國楹聯學概論》(谷向陽, 中國 北京: 昆侖出版社, 2007.2)에서도 ‘遊戯聯’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고, 《巧妙對聯與對聯故事》(周楠湘 編著)에서도 ‘遊戯趣味聯’이라는 부류를 설정하고 있다.

25) 任志揚, 앞의 책.

26) 周楠湘, 앞의 책, 160쪽.

대련은 어떤 문학 장르보다 형식이 중시되는 장르이고, 형식의 중시는 다시 기교의 중시로 이어지며, 기교의 중시에는 유희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련 문학사상 처음으로 편찬되는 대련 선집들이 대부분 기교적 특성이 강한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sup>27)</sup> 기교가 중시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희적 요소가 부각되는 대련의 장르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 V. 유희적 성격을 띠는 대련의 예

‘유희적’이라는 것은 장난기를 띠면서 재미를 수반하는 것으로 ‘진지함’과는 대비된다. 유희적인 대련이라는 것은 장난기가 들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대련이다. 대련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 장르이므로 유희적 대련은 주로 언어 및 문자적 유희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것들이다. 그런즉 유희적 성격의 대련은 한자의 기본 성격에 따라서 한자의 형태를 이용한 것, 한자의 발음과 뜻을 이용한 것, 한자의 배열 순서를 이용한 것 등으로 나누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분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1. 한자의 형태를 이용한 것

二人土上坐,      두 사람이 흙 위에 앉고,  
一月日邊明.      달 하나가 해 옆에서 밝네.

27) 대련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리가 시작된 것은 淸나라 梁章鉅의 《楹聯叢話》에서부터라고 하나, 대련에 관한 평론 곧 聯話를 집대성한 《聯話叢編》(龔聯壽 主編, 中國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8)는 시기적으로 《楹聯叢話》보다 앞서는 明나라 赤心子の 《奇聯撫萃》, 明나라 馮夢龍의 《金聲巧聯》, 淸나라 汪陞의 《評釋巧對》를 수록하고 있다. 서명에 ‘奇’자 및 ‘妙’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대련의 기교적인 면에 주목한 선집임을 알 수 있다.

金나라 章宗황제가 황후와 함께 새로 지은 누대를 둘러보면서 잠시 흠에 앉았다가 위의 구절을 읊조리자 이에 황후가 화답한 것이 아래의 구라고 한다.<sup>28)</sup> 두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읊은 것이기는 하나 그 속에는 한자의 형태를 이용한 문자유희가 교묘하게 들어 있다. 곧 ‘앉을 좌(坐)’자의 형태는 ‘흠 토(土)’자 위에 ‘사람 인(人)’자가 ‘(앉아)있는’ 형상이므로 ‘두 사람이 흠 위에 앉다’는 出句의 뜻의 이면에는 ‘앉을 좌(坐)’자의 글자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황제를 해에다 비유하고 황후를 달에다 비유하여 황제와 황후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기술한 對句의 이면에도 ‘해 일(日)’자 옆에 ‘달 월(月)’자가 있는 ‘밝을 명(明)’자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그 기발함이 앞의 구에 못지않다. 비록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있었던 상황을 묘사한 것이기는 하나 문자유희적인 요소가 더 돋보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凍雨洒窓, 東二點西三點;	얼음같은 비가 창에 들치는데, 동쪽에 두 점 서쪽에 석 점;
切瓜分片, 上七刀下八刀.	참외를 잘라 조각을 내는데, 위로 칼질 일곱 번 아래로 칼질 여덟 번.

明나라 사람 楊一淸이 8살 때에 신동으로 뽑혀 궁정에 들어가 추운 겨울에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황제가 위의 구를 내자 양일청이 아래의 구로 대답을 했다고 전해진다.<sup>29)</sup>

위의 구는 ‘동녘 동(東)’자에 점이 두 개 있는 ‘얼 동(凍)’자와 점이 세 개 있는 ‘물 뿌릴 쏜(洒)’자의 글자 형태를 형용한 것으로 문자유희이긴 하나 당시 상황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답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出句의 문장 구조 특성에 맞추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앞의 장중황제 부부의 경우와 견주어보면 현실감이 결

28) 《評釋巧對》卷11 拆字類(上) 참조(위 《聯話叢編》제1권, 165쪽).

29) 《評釋巧對》卷11 拆字類(上) 참조(위 《聯話叢編》제1권, 176쪽).

여된 문자유희적 성격이 더 부각된다. 물론 양일청이 이 대구로 황제로부터 상을 받았을 만큼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교묘하고 기발한 가치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踢破磊橋三塊石(척파뢰교삼괴석),     磊橋를 발로 차서 부수면 돌덩이 세 개요,  
剪開出字兩重山(전개출자양중산).     ‘出’자를 가위로 잘라 나누면 산이 두 개 되네.

위 대련 중 出句는 청(淸)나라 건륭(乾隆)시대의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대련에도 능했던 이조원(李調元)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소년이 읊은 구라고 전해진다. 아래의 對句는 이조원이 답을 찾지 못하자 그의 아내가 만들어준 답으로 전해지는 것이다.<sup>30)</sup> 出句는 ‘磊(뢰)’자가 ‘돌 석(石)’자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하여 돌 세 개를 쌓아두었다가 발로 차면서 ‘(돌 세 개로 만들어진)磊橋를 발로 차 부수면 돌 세 개가 된다.’라고 한 것이고, 對句는 ‘날 출(出)’자를 가위로 잘라 나누면 ‘뢰 산(山)’자가 두 개가 된다고 응대한 것이다. 이것 역시 한자의 형태를 이용한 유희적 대련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하구의 평측은 대련의 규범에 들어맞는다.

## 2. 한자의 발음과 뜻을 이용한 것

因荷而得藕,     연꽃을 따라서 연뿌리를 얻고,  
有杏不須梅.     살구가 있으니 매실은 필요 없네.

명나라 때에 신동으로 이름이 난 程敏政은 여섯 살에 신동으로 선발되어 수도로 갔는데, 그 때 그의 재주를 탐낸 學士 李賢이 사위로 삼기로

30) 常江·王玉彩, 앞의 책 제181-182쪽에서 이 對句를 李調元의 작품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하다.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 때 이현은 상에 올라온 음식을 보고 위의 구절을 읊으면서 정민정에게 대구를 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아래의 구라는 이야기다.<sup>31)</sup>

이현의 구는 표면적으로는 연꽃과 연뿌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같은 발음의 ‘因何而得偶’ 곧 ‘누구를 통해서 배필을 구할래?’라고 묻는 것이다. 이에 이미 결혼을 약정하여 매파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된 정민정이 ‘有幸不須梅’ 곧 ‘다행스럽게도 매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같은 발음의 ‘有杏不須梅’에 들어 있는 본래의 뜻이다. 한자의 발음을 이용한 ‘一語雙關’의 기교를 구사한 것이 위 대련의 특징이 되는 셈이다. 문면상의 뜻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가 되지만 이 말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 대련을 보면 발음이 같은 다른 사안을 연상하게 하여 본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외적 형식으로 보면 이 대련은 문자유희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狗啃河上骨,      개는 강가의 뼈다귀를 물고 있고,  
水流東坡詩.      물에는 소동파의 시가 흘러가네.

蘇東坡가 그와 친한 佛印스님과 양자강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흥이 무르익자 불인스님이 소동파에서 出句를 내어보라고 하였다. 소동파가 그 말을 듣고는 손가락으로 강가를 가리키고는 미소만 짓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불인스님이 그쪽을 쳐다보니 굽주린 개 한 마리가 뼈다귀를 물어뜯고 있었다. 소동파가 자신을 놀린다는 사실을 간파한 불인스님은 소동파가 시를 써준 부채를 강물에 흘려버렸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박장대소를 하였다고 한다.<sup>32)</sup>

그런즉 위 대련의 出句는 소동파가 가리켰던 강가의 풍경이고, 對句는 불인스님의 행동을 기술한 것이다. 부채를 흘려보낸 것은 그 부채에 씌어

31) 《評釋巧對》卷3 借影類(上) 참조(위 《聯話叢編》제1권, 90-916쪽).

32) 胡會雲, 앞의 책, 111쪽 참조.

있는 소동파의 시를 흘려보낸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말 없이 행동만으로 그 뜻을 나타내었다고는 하나 이 정도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박장대소를 할 만하지 않다.

여기에는 한 층의 의미가 더 함축되어 있다. 곧 ‘강가’라는 뜻의 ‘河上’이라는 중국어 발음이 ‘스님’이라는 뜻의 ‘和尚’과 같고 ‘詩’의 발음이 ‘주검 시(屍)’자와 같은 데에 그 묘미가 있는 것이다. 소동파가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나타내려고 한 궁극적인 뜻은 ‘개는 스님의 뼈다귀를 물고 있고’라는 뜻을 가진 ‘狗啃和尚骨’였으며, 불인스님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도 ‘水流東坡屍’로서 ‘물에는 소동파의 시체가 흘러가네’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물론 出句와 對句 사이에는 平仄의 규칙도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대련을 두고 ‘말없이 이루어진 대련’이라고 하여 ‘병어리 아(啞)’자를 쓴 ‘啞對’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자의 발음을 이용한 문자유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동파와 불인스님에게 있어서 대련은 최고의 유희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橫批<sup>33)</sup>: 南北

二三四五

六七八九

위의 작품은 어느 가난한 서생이 春聯으로 써 붙였던 것이라고 전해진다. 一에서 十에 이르는 수에서 一과 十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중국식 표현으로 옮기면 ‘缺一少十’이 된다. ‘1과 10이 빠졌다’는 말이다. 그런데 ‘缺一少十’은 중국인들이 가난함을 표현할 때 쓰는 ‘缺衣少食’과 발음이 같다. ‘입을 옷도 먹을 밥도 없다’는 말이다. 글자를 일

33) 春聯은 實用的인 대련의 대표격으로 설 전날에 대문 기둥에 두 구로 붙이는데 밖에서 보아 오른쪽이 上聯이고 왼쪽 것이 下聯이다. 그리고 대문의 상방에 가로로 춘련의 내용을 요약해서 붙이는 것이 바로 橫批다. 橫批는 橫披라고도 한다.



水面凍冰, 冰積雪, 雪上加霜,	수면에 얼음 얼고 얼음 위에 눈 쌓이니 설상가상이요,
空中騰霧, 霧成雲, 雲開見日.	공중에 안개 피어올라 안개가 구름 되고 구름 걷히니 해가 보이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서생을 심문하던 관리가 불쌍한 마음에 이 대련의 出句를 읊조리자, 그 서생이 화답하여 지은 것이 아래의 對句라고 전해진다.<sup>36)</sup> 이 대련의 특징은 앞 어구의 끝 글자가 뒤 어구의 첫 글자로 쓰이는 데에 있다. 소위 頂針 또는 頂眞이라고 하는 수사방법인데, 한자의 배열 순서에 주안점을 둔 문자놀이로 가깝다고 할 것이다.

## VI. 유희수단으로서의 대련

앞에서 기교를 중시한 나머지 유희적 성격이 농후한 대련 작품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편의상 특별한 기교가 동원된 몇 가지 경우만을 살펴보았지만, 대련에 동원되는 기교는 단편 논문이라는 제한된 지면으로는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풍부하다. 한자의 형태를 이용한 것, 한자의 발음과 뜻을 이용한 것, 그리고 한자의 배열을 이용한 것 등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대련에 사용된 기교를 살펴본 것은 한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용한 온갖 기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대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은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다른 대련의 장르적 특성을 형성하는 것이 확인된다. 곧 중국문학의 다른 장르에서는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늠하는 것과는 달리, 대련의 경우에는 그 전에 ‘대련의 요건에 맞고 안 맞고’를 판별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 그것이다. ‘맞고 안 맞고’를 판정하는 것은 게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련의

36) 같은 책, 76쪽 참조.

엄격한 형식적 제약이 결과적으로 게임의 규칙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장르에서는 하나의 주제 하에 수많은 작품이 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지만, 대련의 경우는 出句의 성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對句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구에 맞는 대구의 가능성이 한 가지 밖에 없는 것도 있고,<sup>37)</sup> 출구에 맞게 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대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絶對’라고 하는데, ‘절대’는 ‘짜이(되는 구가) 없다’는 말이다.

淸나라 일대를 통해서 가장 두뇌회전이 빠르고 말 잘하기로 소문난 紀昀도 평생에 답을 하지 못한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의 어린 애첩 明珩이 얇은 베로 창문을 바르다가 얻은 다음과 같은 구가 그것이다.

夏布糊窓, 個個孔明諸格亮;      여름 베로 창을 바르니, 구멍 하나하나가  
    밝고 모든 격자가 환하며;

가는 베로 창을 발랐더니 빛이 잘 비쳐 환한 창문의 모습을 보이는 데로 묘사한 것이지만, 이 속에는 매우 까다로운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곧 ‘구멍이 밝다’는 뜻의 ‘孔明’은 《三國志》의 주인공<sup>38)</sup> 諸葛亮의 字이고 ‘모든 격자가 환하고’로 번역한 ‘諸格亮’의 중국어 발음은 ‘諸葛亮’의 중국어 발음과 같다. 그러므로 이에 맞는 對句는 사람의 자와 이름을 함께 써 넣어야 한다.

紀昀은 끝내 明珩의 出句에 어울리는 對句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翰林院의 다른 학사들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 일이 있고서 2백년 쯤 지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 어울리는 對句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37) 앞에 인용한 것 중에서 ‘二三四五, 六七八九’의 경우 앞의 ‘二三四五’에 대해서 짝이 될 수 있는 구는 ‘六七八九’이외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38) 羅貫中 著, 吳小林 校注, 《三國演義校注》(臺北: 里人書局, 1994.9), 9쪽.

幽香滿院, 郁郁畹華梅蘭芳.      그윽한 향이 정원에 가득한데, 향기로운 화  
단마다 꽃이요 매화와 난초의 꽃이로다.

20세기에 京劇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梅蘭芳의 자가 곧 ‘畹華’였던 것이다. 출구에 어울릴 수 있는 자와 이름을 가진 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梅蘭芳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39)</sup>

이 대련의 경우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매달린 끝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마침내 풀어낸 것과 진배없다고 할 것이다. 대련에는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내는 문제와도 같은 일면이 있다. 또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지적 만족감과 쾌감이 동반된다는 점에는 난이도 높은 게임과도 같은 성격도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곧 순수한 유희 수단으로서의 대련의 존재를 상정하게 한다.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 형식만의 대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학의 범주를 벗어난 게임으로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樹已半尋休弄斧,      나무가 이미 녀자나 되니 도끼질 하지 마오,  
果然一點不相干.      과연 하나도 상관이 없구나.

어느 사람이 읊은 出句에 대하여 청나라 말기의 유명한 학자이며 관리였던 張之洞이 읊은 對句라고 전해지는 작품이다.<sup>40)</sup>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 엉뚱하기 이를 데 없는 대련이다. 아래의 對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라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이 두 구는 매우 정교한 대련이 된다. ‘나무 수(樹)’에 대응하여 같은 명사로서 식물에 관련 있는 ‘열매 과(果)’자를

39) 이상 이 대련에 관한 내용은 李建良, 《風流才子紀曉嵐》(長春: 長春出版社, 2006.1), 200-201쪽 참조.

40) 胡會雲, 앞의 책, 104-105쪽 참조.

대응시키고, ‘이미 이(已)’자라는 허사에 대하여 ‘그럴 연(然)’이라는 허사를, ‘半’이라는 수사에 대하여 ‘一’이라는 수사를, ‘尋’이라는 양사에 대하여 ‘點’이라는 양사를, ‘休’라는 부정부사에 대하여 ‘不’이라는 부정부사를 썼으니 여기까지는 같은 위치에 같은 품사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대련의 요건을 충실히 만족시키고 있다.

‘관계하다’라는 뜻이 있는 ‘相干’이라는 말은 본래 부사인 ‘서로 상(相)’자와 ‘관련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干’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干’자를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새겨서 ‘방패 간(干)’으로 본다면 그 위의 ‘도끼 부(斧)’자와 정교하게 짝을 이루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서로 상(相)’자를 동사로 쓰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그 위의 동사 ‘弄’과는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出句의 평측은 ‘측측측평평측측’이고 對句의 평측은 ‘측평평측측평평’으로 되어 있으니 짝수 번째의 평측이 상반되어야 하고 出句의 마지막 글자는 측성, 대구의 마지막 글자는 평성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실하게 만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련을 ‘내용과 관계없는 대련’이라는 뜻으로 ‘無情對’라고 부른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대련’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無情對는 대련이 게임과 같은 유희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출구와 대구의 둘로 이루어지는 대련의 형식은 게임을 즐기는 두 사람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대련이 유희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형식이 장르의 본질을 이루는 대련에 본래적으로 잠재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을 중시하는 것이 기교의 발달로 이어지고 기교의 발달이 유희적 속성을 낳았던 것이다.

## VII. 맺음말

《滄浪詩話》에서는 “시(를 잘 짓는 데)에는 별도의 재주가 있으니 공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공리를 많이 하

지 않으면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sup>41)</sup>고도 하면서 시가 창작과 학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오한 이치를 설파한 바가 있다. 과연 역대의 최고 학자가 최고의 시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최고의 시인 역시 최고의 학자가 아닌 경우도 많지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무지렁이가 대신인이 되었다는 기록도 찾아보기 힘든 것을 보면 《滄浪詩話》의 논리는 매우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문학으로서의 대련의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형식적 요건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대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련은 형식이 중시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교가 강조되므로 대련의 창작에는 문학적 감수성보다는 두뇌회전의 기민함과 풍부한 학식이 더 중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련은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순수한 문학가보다는 학자에게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

형식의 중시와 그에 따르는 기교의 강조는 대련에 어느 장르보다도 유희적 요소가 가미될 공간이 많아지게 하였다. 그렇지만 유희수단으로서의 대련은 아무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두뇌가 명석해야 하고,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유희수단으로서의 대련은 시문에 대한 소양이 풍부하였던 전통시대 지식인들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대로 기발하고 재미있는 대련을 남긴 사람들은 대개 당시에 풍부한 학식과 뛰어난 두뇌회전으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들이다. 얼마간 필자의 의도가 담긴 선정이기는 하지만 이 글의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유희적 대련을 남긴 사람들도 대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식인들이 대련으로써 학식의 풍부함과 두뇌의 명석함을 과시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즐기는 게임으로 삼아 지적인 쾌감을 느끼기도 하며, 풍자와 해학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련은 지식인들의 민중에 대한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보통 사람은 알아보기 힘든

41) 嚴羽, 《滄浪詩話·詩辯》: “詩有別才, 非關書也, ……(然)非多讀書多窮理, 則不能極其至.”

춘련을 만들어 내거는 데에는 학력에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지식인의 오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강자 중심의 중국문화의 일면을 목도하기도 한다.

대련의 특성상 유희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은 대련이 오랜 동안 정통 문학 장르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근대에 대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던 梁啓超는 그 자신이 대련의 창작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음에도, 대련을 평가하여 '(다른 장르의)겉다리의 겉다리에 불과하다'라든지 '고통 중의 작은 놀이'<sup>42)</sup>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은 대련이라는 장르에 내재되어 있는 형식적이고 기교적이며 유희적인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학 장르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독자적인 예술적 경지를 구현하는 작품들도 적지 않게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한 장르로서, 그리고 예술의 한 갈래로서의 대련의 지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처사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도자기를 사용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독자적인 미적 특성이 있는 예술로 평가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국적인 성격을 가장 잘 갖춘 장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통해서 중국 지식인의 특성과 중국 문화의 특성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하는 대련은 문학의 관점에서든 문화의 관점에서든 연구의 가치가 높은 장르라고 할 것이다.

#### < 參考文獻 >

- 常江·王玉彩 選編, 《新編巧妙對聯》(北京: 金盾出版社), 2004.4.  
 周楠湘 編著, 《巧妙對聯與對聯故事》(北京: 中國華僑出版社), 2007. 11.  
 胡會雲, 《中華對聯藝術》(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08.5.  
 龔聯壽 主編, 《聯話叢編》(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8.

42) 谷向陽·劉太品, 앞의 책, 4쪽 참조.

- 李文鄭 楊燦 編,《精彩對聯》(鄭州:中州古籍出版社),2004.1.
- 王俊 主編,《古今對聯集粹》(延吉:延邊大學出版社),2008.10.
- 張夢新·張進 編著,《古今對聯集粹》(杭州:西泠印社出版社),2008.4.
- 陳君慧 主編,《中華對聯》(1-4冊)(北京:線裝書局),2008.11.
- 任喜民 著,《詳說對聯》(北京:新世界出版社),2007.1.
- 鄭清秋(鄭春興) 編譯,《名聯佳對賞析》(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  
2006.8.
- 蔣竹蓀 等 編著,《名聯鑑賞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2008.1.
- 石益仁·毛從民 選編,《對聯集萃》(合肥:黃山書社),2005.4.
- 王謙·高立 編著,《名聯佳對精選999》(濟南:山東人民出版社),2005.1.
- 谷向陽·劉太品 編著,《對聯入門》(北京:中華書局),2007.7.
- 宋輝 編,《對聯故事》(成都:四川大學出版社),2004.1.
- 永志強 編著,《聯海拾珍-古今名聯妙對賞讀》(北京:北京出版社),2004.9.
- 傅小松 著,《古今短聯趣話》(長沙:岳麓書社),2004.4.
- 王友平 編著,《對聯小辭典》(成都:四川出版集團·四川辭書出版社),2005.1.
- 戴本恒 編著,《對聯藝術探微》(長沙:湖南人民出版社),2005.1.
- 錢永興 著,《中國民間對聯賞玩》(杭州:浙江攝影出版社),2005.4.
- 任志揚 著,《對聯常識》(福州:福建人民出版社),1988.12.
- 谷向陽 著,《中國楹聯學概論》(北京:昆侖出版社),2007.2.
- 羅貫中 著,吳小林 校注,《三國演義校注》(臺北:里人書局),1994.9.
- 李建良 著,《風流才子紀曉嵐》(長春:長春出版社),2006.1.
- 嚴羽 著,《滄浪詩話·詩辯》
- 任先大,《清代梁章鉅〈楹聯叢話〉研究》,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6.
- 王金鳳,《對聯藝術的繼承和發展》,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2009.
- 줄고, <對聯의 중국문학사적 위상에 대하여>,《中國文學》59,2009.5.
- 줄고, <중국문학 장르 분류 방법론의 모색>,《中國學論叢》25,2009.2.

## &lt;中文提要&gt;

对联的形式方面的要求对实际的内容都在某种程度上产生着规定和约束, 对联可以说是一种非常重视形式要求的文学体裁。它虽是文学的一个分支, 但又具有独立于内容之外的、只要满足了形式要求就可以构成一个作品的独特空间。从这个角度来说, 对联有生以来就具有成为按照规定的形式来填字的文字游戏的可能性。由于对联重视形式、强调技巧, 因此对联的创作重视脑筋转动的机智灵敏和丰富的学识。

考虑到对联的游戏的属性, 对联正适合成为诗文素养丰富的传统时代知识人的游戏手段。知识人既可以通过对联显示自己丰富的学识和头脑的机灵, 又可以运用为两个人的游戏来达到智慧型的快感。有时候对联还被活用为讽刺和诙谐的工具。因为一般人很难做到这些事, 对联也就成为了知识人在普通民众面前炫耀优越性的手段。

对联具有诸多游戏因素的特性, 这成为长久以来对联没有得到正统文学体裁的认同的主要原因。但是对联中其他文学体裁不能够表现出来的、构成独特的艺术境界的作品也不少, 从这一点来说, 作为文学的一种体裁、或者作为艺术的一个分支, 对联的地位都是毫无疑问的。

对联不仅是具有中国特性的体裁, 而且通过它的属性, 可以发掘出中国知识人和中国文化的特性的部分。综上所述, 无论从文学的角度来看, 还是从文化的角度来看, 对联都分明是具有很高的研究价值的体裁。

주제어 : 對聯, 知識人, 形式, 技巧, 遊戯